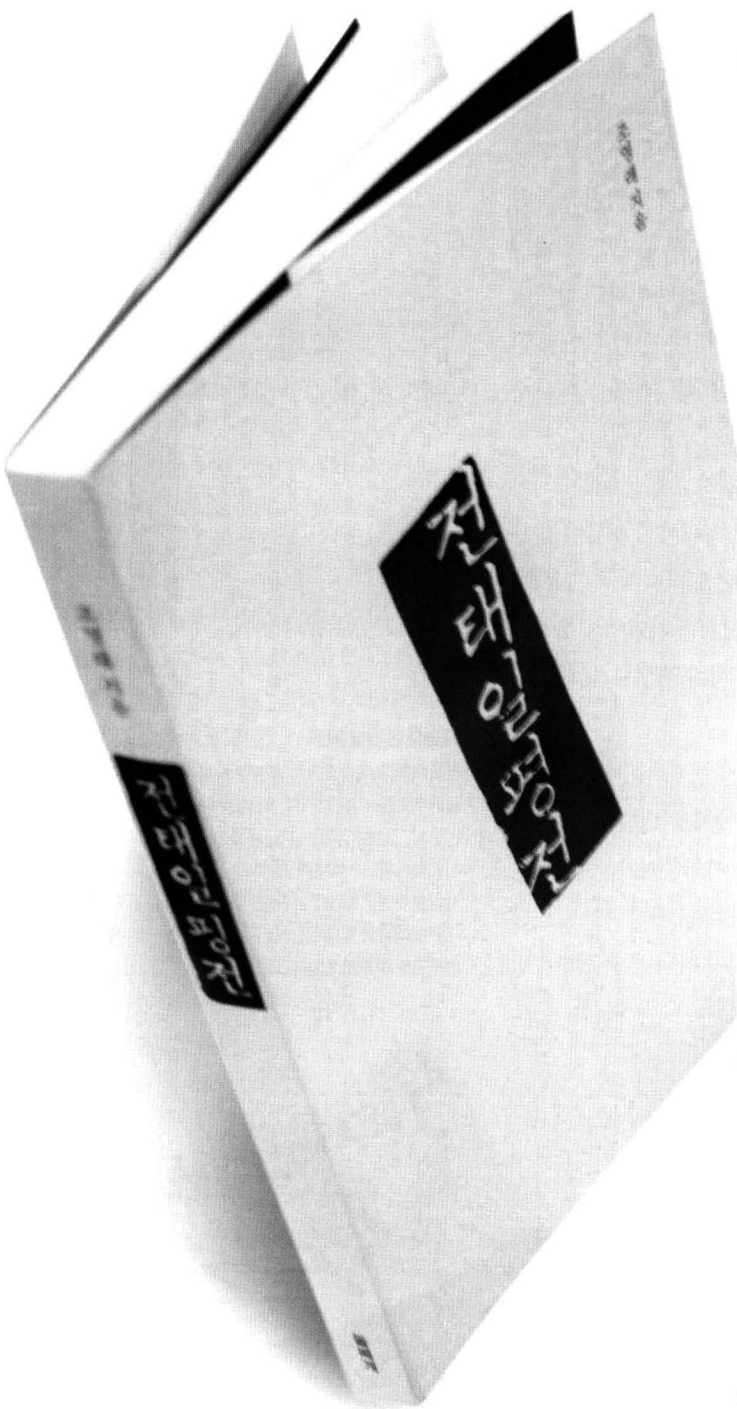


전태일을 아는 모든 우리와 전태일을 모르는 모든 우리에게



고백하자면, 나는 '노동'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내 부모는 지나치게 근면한 노동으로 나를 키워냈다. 노동 경외, 나를 키워낸 노동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나를, 나는 때때로 발작적으로 낮설어한다. 그런데 말이다. 내 부모는 노동이라는 말을 한 번도 입에 담아본 적이 없으니 노동 경외를 생각해본 적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그네들에게 노동은 형벌처럼 주어진 밥벌이었으니, 노동을 부정하고 의심하고 배반하고 메타포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리고 '노동자' 를 발견한다. 밤 11시 버스안. 발견이 늘 즐거운 것은 아니다. 노동자는 하필 채구가 왜소하고 늙었으며 허름한 잠바를 걸치고 있다. 노동자는 술에 취해 있고, 번쩍거리는 금붙이를 손가락에 무기처럼 지니고 있다. 노동자는 저 검은 입 속에도 번쩍거리는 금붙이를 숨기고 있을지 모른다. 썩은 어금니를 금붙이의 광택 속에 숨기기 위해 노동자는 아마도 여러 날 밤잠을 설쳐야 했을지 모른다. 노동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 것이다. 모가 뭉그러진 칫솔로 이빨을 닦고 잠자리에 들지 모른다. 내 눈동자는 기민하게 노동자를 훑는다. 아버지가 겹쳐 떠오른다. 그리고 어린 날 내 머릿속에 각인된 벽돌공들이 한 명 한 명, 수면 위로 떠오르는 죽은 물고기처럼 희미하게 떠오른다. 벽돌공들은 칠성사이다를 따라 마시는 유리컵에 소주를 따라 마시며 분홍색의 싸구려 소시지를 몽딩 몽딩 베어먹었다.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전태일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서른의 경계를 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전태일은 죽었다. 육체가 소멸한 뒤에도 목소리는 살아남는다. 허다한 목소리들 중에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는 목소리가 있는 법이다.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재단사보조시절 "밥을 굶은 시다들에게 버스 값을 털어서 1원짜리 풀빵을 사주고 청계천 6가부터 도봉산까지 두세 시간을 걸어가기도" 했던 전태일은 절대로 나약하지 않다. 시다에서 미싱사의 자리까지 오르지만 지옥 같은 노동현장에서 고통받는 어린 시다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기꺼이 미싱사 월급을 포기하고 재단보조가 되었던 그가, 어떻게 나약하다고 할 수 있을까.

나를 죽이고 가마.

나를 죽이고... 나를..., 지진의 전조 같은 흔들림과 함께 버스가 멈춘다. 노동자가 비틀거리며 버스에서 내린다. 어둡고 차

이 글을 쓴 김숨은 1997년 대전일보 신춘문예, 1998년 <문학동네> 동계문예공모로 등단했다. <느림에 대하여> <중세의 시간> <투견> <새> <제8전시실> 등을 발표했다.

가운 거리로 지워지듯 사라진다.
 만약에 전태일이 살아 있다면...
 전태일의 가슴에 울분으로 새겨진, 평화시장의 다락방에 격리된 채
 햇볕 한 번 쬐지 못하고, 재봉틀 돌아가는 소음과 원단
 먼지 속에서, 하루 열여섯 시간씩, 간혹은 사나흘씩 잠
 안 오는 약에 취해 노동을 해야 했던 열서너 살의 소녀
 들은 '나와너' 의 어머니가 되어 있다.
 그런데 전태일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다시 고백하자면, 나는 평화시장의 재단사였던 청년노동
 자 전태일과 다르다. 1948년에 대구에서 태어난 전태일
 은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으며, 찢어지게 가난한
 집을 뛰쳐나와 거리의 천사가 되어야 했으며, 차가운 거
 리에 어린 동생을 버려야 했으며, 극빈의 상태에서 하루
 열여섯 시간의 노동에 시달려야 했으며, 점심으로 어머
 니가 싸준 밀가루 빵을 숨어서 먹어야 했다. 아무리 기
 억을 더듬어보아도 빠가 휘도록 고된 나날을 보내야 했
 던 어느 한 시절이 내게는 없다.

“인간을 물질화하는 세대, 인간의 개성과 참 인간적 본능의 충족을
 무시당하고 희망의 가치를 잘린 채, 존재하기 위한 대가
 로 물질적 가치로 전락한 인간상을 증오한다.”

전태일이 일기를 쓰던 1969년의 겨울 어느 날과 2004년 겨울의 어
 느 날은 얼마나 다른가. 극빈층은 여전히 존재하며, 노
 동자들이 직업병이나 사고로 불구가 되거나 죽어간다.
 고향을 버리고 떠난 외국인노동자들은 노동 착취와 열
 악한 근무조건과 저임금에 무방비하게 놓여 있다.
 그러니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리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몸을 불사른 전태일이 죽음 뒤에 부활해 떠돌아
 다닐 수밖에.

《전태일 평전》 조영래 지음 | 돌베개 | 320쪽 | 값 9,000원



1970년 11월 13일 모든 노동자의 존엄 회복을 외치며 평화시장 앞
 길에서 분신 산화한 전태일이 되살아난 곳은 골방이다.
 사회개혁가이자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조영래(趙英來·
 1947~1990)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생활에 있던
 1974년 전태일을 살려내기 위해 펜을 들었다. 1983년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을 제목으로 달고 출간
 된 전태일평전(당시 제목은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었다) 초판본은 '전태일 기념관 건립위원회' 로
 나와야만 했다. 전태일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조차 금지
 되던 시절이었다.

《전태일 평전》이 우여곡절 속에서도 30만 부 이상 팔리는 동안 나는
 노동자 전태일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전태일을 제대로
 알고자 한 것은 '노동' 을 생각하면서부터다. 노동은 강
 요되고, 강제된다. 노동하지 않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
 는, 노동의 강박.

노동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
 에 어울리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정하며 상당한 보
 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보
 장 방법으로써 보충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여
 기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3조 3·4항)

인간의 존엄성에 어울리는 생활이 그 누구에게나 보장된 것은 아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인간의 존엄성에 어울리는 생활이 다른 누군가의
 억울하게 희생된 노동으로 보장되는 순간, 나는 인간으
 로서 존엄성을 잃는다.

아마도 전태일이 시공을 넘어 내게 뼈아프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친구(親友)여, 받아 읽어주게. 친구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領
 域)의 일부인 나 (...)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인 일
 부인 나 (...)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유서 중에서)

전태일을 아는 모든 우리를, 전태일을 모르는 모든 우리를, 전태일
 의 짧지만 영원한 투쟁 영역으로 초대한다.
 희생된 노동으로 무사하게 자라난 우리 모두는 청년노동자 전태일
 의 은혜를 입었기에. ■